

제1회 제주학 정책포럼 녹취록

세계 섬 문화 네트워크, 섬 관광지의 현실과 대안

일 시 : 2016년 4월 25일(월) 14~16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관 소회의실

참 여 :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안창남(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조판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화(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강시영(한라일보 선임기자)

김수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장)

이중환(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김현민(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이재홍(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정승훈(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김태윤(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순덕(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찬식(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녹 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녹취록 작성 : 제주학연구센터 지창규

녹취록 검수 : 제주학연구센터 현해경

녹취록 작성 기간 : 2016년 4월 28일(목) ~ 5월 2일(월)

녹취록 검수 기간 : 2016년 5월 3일(화) ~ 5월 10일(화)

<녹 취 록>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제1회 제주학정책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입니다. 지금 도의 이중환 국장님이 지금 오고 계신데, 그냥 오시는 대로 같이 배석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신 분들 소개를

먼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강기춘 원장님 오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김수열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홍성화 교수님 오셨습니다. 한라일보 강시영 선임기자님 오셨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이재홍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발전연구원 에서 정승훈 연구실장님 오셨습니다. 김태윤 선임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문순덕 책임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조판기 박사님은 이제 발제를 맡길 거라서 따로 나중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두 분, 국·과장님 이제 오시고, 그 다음 이제 김명만 위원장님께서 이따 오실 텐데, 지금 오늘 간담회 일정이 급한 게 잡힌 게 있어서 좀 이따가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개회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발전연구원 강기춘 원장님으로부터 개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기춘 원장(제주발전연구원) : 어디,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나가서 할까요.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그냥 앉아서 하시지요.

강기춘 원장(제주발전연구원) :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세계 섬 문화 네트워크, 섬 관광지의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제1회 제주학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안창남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그동안에는 문순덕 박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찬식 박사님을, 센터장님으로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 이 우리 포럼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그런 포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학연구센터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제주지역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제주지역과 비슷한 그런 역사 문화 경향을 가지고 콘텐츠(Contents)를 가진 지역과 네트워크(Network) 구축을 우리가 이제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 주제가 선정이 된 배경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제학에서도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회비용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 모든 것에는 공짜가 없다. 이게 경제학의 가장 대원칙인데, 제주도가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이나 난개발, 부동산 시장의 급등, 또는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사례가 없나 한번 쪽 살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스페인의 마요르카(Mallorca)도 동일한 그러한 어려움을 이미 겪은 경험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아마 오늘 우리 조판기 박사님께서 그러한 사례들을 발표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포럼이 세계적인 섬 관광지가 겪는 그런 현실을 잘 진단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관광과 환경, 사회문화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시면, 제주학연구센터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 예, 반갑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사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정착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는 2015년 1,360만 명의 관광객이 입도하였고, 관광 조수입도 2014년 기준 6조원을 넘어서는 놀랄만한 큰 규모의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외국인 자본 유입에 따른 부동산 버블(Bubble) 문제, 도시환경의 악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전환의 출발점에서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 환경과 문화의 가치, 경제 체감 위기의식 등에서 지혜를 모으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가능한 도시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도 정책진단이 필요한 이 시점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새로운 전문체제로 확대됨에 따라 현 제주사회의 문제를 제주학의 한 분야에서 접근하고자 제주학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 조판기 박사로부터 마요르카 섬의 관광과 개발정책 속에서 우리 제주

가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가져 올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김명만 위원장님, 홍성화 교수님, 김수열 회장[위원장]님, 강시영 기자님, 이중환 국장님, 이재홍 본부장님과 또 여러 관계자분들과 비롯해서 제주현안을 어떤 해법으로 가져가야 할지 열띤 논의 속에 대안 도출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오늘 제시된 많은 고견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대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정책 대담회가 도민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질적 성장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예, 고맙습니다. 늦게 오신 토론 담당하시는 두 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오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문화정책과장님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은 마치고요, 곧바로 이제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는데, 이따가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포럼은 예전에 고정된 어떤 세미나 방식, 그러니까 이제 발표하고 지정 토론하고 플로어(Floor)에 계신 분들 의견 듣고 이런 식이 아니고, 진짜 포럼과 같이 전문가 분들을 꼭 지정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한 번 즉담회 형식으로 좀 해보는 그런 형식을 취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이렇게 지정토론을 따로 몇 분만 이렇게 둔 게 아니고 다 같이 모두가 지정토론의 자격으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제주학 정책포럼’은 세계 섬 문화 네트워크, 섬 관광지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큰 주제를 걸고 그 가운데 과연 섬 문화 네트워크의 주요 어떤 대상지가 어디겠는가 물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요르카 섬이 좀 저희들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섬 사례도 같이 나열해서 해봤으면 좋겠지만, 아예 포럼에서 집중적으로 마요르카만 한번 가지고 얘기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주제를 스페인 마요르카 섬을 통해 본 제주 미래비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해서 오늘 특히 ‘제주미래비전’ 프로젝트(Project), 지금 용역에 책임연구원을 맡으셨던 국토연구원의 조판기 박사님 특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세계 섬, 마요르카 섬을 통해서 ‘제주미래비전’의 어떤 대안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30분 이내로 조판기 박사님의 발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반갑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정부정

책을 연구하고 있는 조판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거의 제주도민 다 된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아는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반갑고요. 사실은 안위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제주의회에 대해서는 트라우마(Trauma)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 제가 ‘제주미래비전’을 하면서 상당히 어떤 찬반 이런 것들이 많았고, 뭐 언론에서도 나오셨지만 부실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김태운 박사님 계시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튼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주도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또 여기 의회에 계시는데, 의원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제주]미래비전’을 만들어놓고 세부실행 계획을 각 과별로, 과별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까지 앞으로 뭐 어떤 특별법을 어떻게 바꿀 거고, 조례를 어떻게 바꿀 거고 계획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 하고들 계시는데, 저희들이 뭐 아무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요르카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도 참고를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했었구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무튼 비전(Vision)이 제도화 될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도민전체가 좀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제 ‘[제주]미래비전’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와이(Hawaii)나 싱가포르(Singapore), 홍콩(Hong-kong)을 제주도가 벤치마킹을 해서 쫓아가려고 추구를 해 왔었죠. 그런데 그런 벤치마킹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 나라를 따라잡을 때는 어떤 거에 딱 특화시켜서 벤치마킹을 나갈 수 있는데, 이제는 어디를 벤치마킹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만의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뭐 제가 또 ‘[제주]미래비전’을 얘기합니다만 ‘[제주]미래비전’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주]미래비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벤치마킹을 할 데가 어디인가? 이제 그런 걸 찾다가 마요르카, 몰타(Malta) 이런 섬들을 제주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섬 국가 내지는 섬들을 저희가 이제 좀 찾아봤죠. 찾아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섬이라는 그런 국가든, 아무튼 지역이든 이런 데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산업적인 측면이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로 그 농업에 특화된 그런 국가들이었는데, 국가나 지역이었는데 요새는 관광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85%가 넘는 게 GDP의 85%가 넘는 액수가 관광에서 나오고 있고, 일부는 이제 제조업에 조금 있고, 제주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마요르카를 가보지 못했어요. 작년에 워낙 이게 급히 돌아가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 제주 [연구]하면서 저희가 2주만에 뭐 [제주미래비전 실무위원회] MP(Master plan)단을 같이 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보질 못하고, 겨우 논문 7~8개 정도 읽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봐 가지고 찾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화두를 던지는 정도가 될 거고, 또 깊이 있는 거는 조금 아까 오시기 전에 어떤 분들은 가 보셨던 분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가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상황을, 제가 모르는 더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도 보니까 문헌을 찾아보니까 외국 영문 문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스페인(Spain) 쪽에서는 좀 있는데 그렇다고 논문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이성주 박사라고 성균관대에 독문과 교수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쪽을 좀 페이퍼(Paper)를 하나 쓴 게 있더라구요. 딱 하나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독문학을 해서, 이제 그 양반도 어떤 생각이었냐면 지금 마요르카 사태가 중국인들이 제주 와서 뭐 토지를 사고 관광에 몰려오고 이런 게 거의 비슷하다는 이런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우린 마요르카 만큼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마요르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마요르카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요르카가 제주가 따라야 될 모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될 모델(Model),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특히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제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싸구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과거에 마요르카에 문제가 됐던 거구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제주도 약간은 그런 이미지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또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정치 특별자치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정치·행정 자체구를 갖고 있는 게 제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주보다는 훨씬 자치가 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는 정말 그 외교 하고 국가를 빼고, 거의 대부분을 자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사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스페인에서 대통령이라고 그 섬, 발레아레스 제도 거기의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가 지금까지, 지금 트렌드(Trend)를 쪽 가게 되면 거의 마요르카화 될 수도

있는데, 그 걸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마요르카 섬, 마요르카라는 섬이 속한 제도, 섬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발레아레스 제도라고 있는데 그 전체의, 그 전체가 하나의 국가처럼 제주도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마요르카가 어떤 트레이스(Trace)를 거쳐 왔는지 어떤 궤적을 거쳐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마요르카의 위기 상황을 제주와 좀 비교를 해보고, 마요르카의 정책 전환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제주에 시사점, 이걸 뭐 시사점, 저희 대부분 다 저희 '[제주]미래비전'에 담았는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9p, chapter 1) 발레아레스 제도(Baleares)는 지중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게 해(the Aegean sea)나 아드리아 해(the Adriatic sea) 저쪽에 보면 있죠. 아드리아 해 있고, 에게 해 있고, 이거 이쪽은 그리스(Greece)쪽이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Italy) 있고, 스페인이고, 프랑스(France)고, 이쪽 위에 독일(Germany)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아프리카(Africa)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시칠리아(Sicily, Sicilia)나 이런 섬들이 있고 여기 발레아레스 제도라고 해 가지고 그 중에 한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요르카 이제 발레아레스 전체의 면적은 이제 뭐 5,000km² 정도가 되고 마요르카는 한 3,600km², 그러니까 제주의 한 2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Madrid)나 바르셀로나(Barcelona)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런던으로부터 2시간 정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이런 독일 이런 데서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섬인데, 마요르카, 이게 마요르카라는 게 인슐라메이오(Insula maior)에서 해 가지고 스페인어로 큰 섬이란 뜻이고, 메노르카(Menorca), 이걸 작은 섬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비자(Ibiza), 포르멘테라(Formentera) 이렇게 4개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집 9p, chapter 2-1) 다음은 그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상당히 마요르카는, 스페인 자체가 옛날에는 굉장히 섬이어가지고 못 사는 섬이었는데, 발레아레스 제도는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GDP가 높은 지역에 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유럽 경제위기를 겪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거의 4%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늘었구요. 수입 물량은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구요. 여기는 제주와 좀 다르게 신발이나 의류, 그 다음에 섬유, 패션 액세서리(Fashion accessory), 그 다음 보석 등 제조업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산업이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3차 산업이라는 것도 결국 다 관광이 되겠습니다. 제주보다 훨씬 더 관광에 특화된 그런 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이재홍 본부장님께서 섬 무슨 회의가 스리랑카(Srilanka)에서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스몰 아일랜드(Small Ireland) 학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제주도 많이 유명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먹고 살면 섬들은 전부 다 관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가 우리 지금 거의 70% 정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관광에 이렇게 가는 게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인·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광에 특화된, 특화도가 굉장히 높은 게 이렇게 제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구요.

(자료집 10p, chapter 2-2) 인구는 천백만(실제 수치상으로는 110만, 발제 간에 오역이 있었음) 정도, 전체 발레아레스 총 인구는 천백만(실제 수치상으로는 110만, 발제 간에 오역이 있었음) 정도가 되고, 마요르카는 한 86만,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구는 젊은 층이 많구요. 그래서 30대, 40대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레아레스 제도의,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가장 큰 섬, 아까 말씀드린 큰 섬이라고 그랬죠. 보다 큰 섬, 그리고 거기에서 인구도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집 10p, chapter 2-3) 그리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국제 관광객수 같은 경우도 1800만(실제 수치상으로는 1,100만, 발제 간에 오역이 있었음) 정도로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인구하고 겹쳐있는데요. 1800만(실제 수치상으로는 1,100만, 발제 간에 오역이 있었음)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관광객 수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자체가 사실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농업과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중에서도 마요르카는 더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카탈루냐(Cataluna)지방,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냐 지방이 1위이고, 그 다음에 발레아레스 제도가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카나리아스(Canarias) 제도 쪽이 더 인구가 많았는데, 발레아레스가 2011년도에 역전을 하면서 그걸 계

속 유지를 하고 있구요. 관광 같은 경우에도 농촌 관광, 해상 관광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광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량 관광 위주로, 그러니까 도심 관광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발라마인(?)인가 어떤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호텔,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Nightclub), 그 다음에 술, 여자 산업, 이런 쪽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 상당히 고부가가치 산업 그 다음에 질적 성장, 이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질적 성장을 골프와 다른 어떤 고부가가치 산업, 관광 이런 쪽으로 방향 턴(Turn)을 했는데, 또 거기에 따른 또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집 11p, chapter 2-4) 그래서 인프라(Infra) 같은 경우는 지역 간 연결 네트워크(Network)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섬과 다른 도시 간, 그 섬 내에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있는 편이구요. 그 다음에 주요 관광지들도 굉장히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 제주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구요. 발레아레스 제도에는 교통선이 공항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요르카, 메노르카 그 다음에 이비자, 이렇게 3개 공항이 있는데 주로 이제 들어오는 거는 주로 마요르카 공항이 되겠습니다. 공항 관련해서 저는 지금 2공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마요르카에서 런던(London)까지 출퇴근하는 비행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마요르카에 살기를 고소득 하는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과연 제주가 이런 전략을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또 일부 교수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 그래서 상해(Shanghai)나 동경(Tokyo)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제주에 사는 그런 미래를 그려보는 사람도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마요르카에서 런던까지는 출퇴근 비행기가 1대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말씀 안 드렸는데, 2014년에 승객이 2,300만 이 정도가 마요르카 공항을 이용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팔마(Palma) 공항이 마요르카 공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유럽 전체에서도 13위이고 지속적으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주와 마찬가지로 또 공항을 여기는 이제 2공항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확장을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확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집 11p, chapter 3) 그 다음에 팔마가 마요르카에서 가장 큰 도시죠.

큰 도시인데 지중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중해에 있고, 인구는 한 4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시로 보시면 되겠구요. 마드리드에서 항공편으로 한 40분 바르셀로나에서는 순수하게 떠 있는 시간만 한 16분 거리에 있는 걸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그걸 할 때 서울과 부산을 보면 제주와 이렇게 같이 좀 비교가 되지 않나 해 가지고 고민을 처음에 했었구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은 마요르카라는 섬 자체가 옛날에, 옛날부터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했던 섬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19세기 쇼팽(Chopin)과 쇼팽의 애인인 조르주 상드(George Sand)가 가서 여기에서 몸이 안 좋아서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휴양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걸로도 유명하고, 또 우리한테는 안익태 선생이 여기 가서가지고 스페인 여자랑 결혼하셔서 여기 사셨죠. 그래가지고 교향악단 지휘자도 초대 지휘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마요르카 교향시라는 곡을 안익태 선생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해방 전에 가서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가서서 지휘자도 하셨고 그런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유명한 곳이었는데, 교통편 때문에 그렇게 대량관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자동차와 비행기 수단이 발전하면서 대량 관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쪽 그렇게 가다가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금융 자본주의화 되는 것들을 거치면서 부동산도 같이 연동되는 시스템이 갑니다. 이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IMF를 겪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게 연동이 됐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시발점을 197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마요르카도 부동산이 이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부동산 시장도 열고 이런 것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지향을 했죠. 그래서 화폐나 금융, 모기지 이거에서 부동산 개발, 우리가 했듯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전략,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으로 주택과 개발을 동시에 이루었고, 외국인 투자를 굉장히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년간 부동산 가격이 한 8배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가 많이 올랐던 15년 동안 8배는, 그 정도 올랐습니까, 그 정도는 안 오른 거 같아요. 아직은. 아무튼 유럽, 특히 유럽사회에서 8배가 오른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니까요. 그래서 뒤에 나오면 아시겠지만, 이거에 따른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제주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저는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걸었던 길을 마요르카는 좀 먼저 걸었다. 그

리고 문제도 먼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집 12p, chapter 4-1) 그래서 마요르카 관광 내지는 지역정책 내지는 도시 정책 이런 것들을 삼단계로 나누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950년 전에도 관광지로 유명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관광객이 급증하는 것은 5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교통이 발전하고, 항공기, 항공관광이 이루어지면서 된 거죠. 그래서 1955년에 18만 명이었는데, 73년에는 350만 명 정도, 거의 한 20배 다 되죠. 360만 명이면 20배가 되니까, 20배 정도가 증가를 했구요. [상주 인구도] 50년대 14만 명 정도에서 70년대에는 21만 명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용지도 굉장히 많이 두 배정도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면서 나타나는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마요르카가 또 가장 지금의 제주 상황과 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500만에서 750만 명으로 증가를 했구요. 그 다음에 도시를 하루당 1.3ha, 1ha가 천 평정도 되니까요. 어느 정도, 천삼백 평 정도를 매일매일 매주 개발을, 아니 매일 개발을 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료집 12p, chapter 4-2) 그 다음에 3단계는 9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이 전체 부동산의 한 40%를 차지 했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현재는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제주에서도 이게 처음에 국제자유도시를 했을 때 고민을 했는데, 금융을 고민하면서 Tax Haven을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 피난처, 뭐 이런 것들을 여기는 조세 피난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Switzerland) 자금이, 스위스에 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자원들이 많은데, 김정은도 여기에 다 비밀통장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자본들이 마요르카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주택 수는 증가했지만, 전체 공가는 한 20%정도 육박을 하고 있구요. 한 10%정도는 또 세컨 하우스(Second house)로, 유럽인들의 주로 독일 은퇴자들의 세컨 하우스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공항 확장을 계속 해왔구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같은 경우 10년간에 한 800%니까, 8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한 6천800명 정도에서 2006년도에는 5만5천명 정도로 증가

를 했구요. 팔마 전체 인구 중에서 이민자 비율은 한 15%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 상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계에서 한 338%가 증가한 걸로, 상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자료집 p12, chapter 4-2 [마요르카 평균토지금액 상승] 표) 팔마 마요르카 섬에서 팔마 지역의 토지가격의 상승을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지역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료집 p13, chapter 4-3) 이거는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한 건데 이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p13, chapter 5-1) 그래서 이제 마요르카가 이제 이런 상황이 왔었는데, 마요르카에 위기가 닥칩니다. 위기가 닥치는 게, 유럽의 경제위기가 97년도인가 그때 경제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때 관광객이 굉장히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에서 90년대 동안 환경과 자연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섬은 일반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쓰레기 문제와 그 다음에 해안 변에 이러한 개발을 막 해왔던 거죠. 이거에 대한 반성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흥을 했고, 또 관광객 체류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계속 고민을 계속 했고, 단발적으로 관광도 다양화하고 현대화 하자. 그 다음에 투자도 다양화 하자. 이런 것들을 했지만 실패를 했구요. 그래서 1988년부터 91년까지 관광객이 급감을 했습니다. 20% 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때 마요르카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미지, 환경 안 좋다. 그 다음에 날씨가 이런 것들은 좋지만 상당히 난개발이 되어 있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이때 좀 관광이 감소를 했구요. 그래서 매력이 저하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집 p14, chapter 5-2) 다음에 이제 그 마요르카에 위기 중에서도 좀 우리 제주와 좀 연관이 있는 것들을 이성주 교수 논문, 그 다음에 다른 외국 논문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이 반레알화(Anti-Real)(?)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양지의 매력이라는 것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휴양을 취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그곳만의 경험할 수 있는 문화의 향유에 있다고 이제 하는데, 이 다수의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입된 도로, 호텔, 인프라 구축이 역설적이게도 매력으로 다가왔던 자연을 파괴하고, 관광지의 도시화를 불러와서 거기를, 관광지를 찾지 않는, 이런 것들을 반레알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 제주는 지금 굉장히 반레알화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매력적인 곳으로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화’라는 말이 나중에 나올 때, 우리가 반레알화가 아니고 굉장히 매력적인 휴양지 내지는 매력적인 관광지 이런 것의 대명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렇게는 가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원래는 여기에 영국 관광객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페인 내국인 관광객이 한 10% 정도가 마요르카를 찾구요. 한 30%가 영국 관광객이고, 한 40%가 독일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과의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이, 독일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여기에 주로 은퇴한 사람들의 휴양지,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서 거기에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독일 젊은이들이 와서 굉장히 방탕한 문화를 여기서 즐기는 그런 섬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까 이 마요르카가 싹, 싸구려 이미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독일 사람들이 ‘여자 청소부의 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인데,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 성적인 이미지, 여자 청소부의 섬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싹 이미지로 해가지고 ‘아, 여자 청소부도 가서 놀 수 있는 곳’ 그 정도로 안 좋은 이미지로 독일인들에 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독일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키고 어떻게 밖에선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뭔가 해방구를 찾을 땐 here를 가는 거죠, 그래서 섹스(Sex)나 해양, 독일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술이나 고성방가를 여기서 많이 지르고, 파티(Party)의 장소 이런 것들로 마요르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로 하는 것이 마요르카 맥주 거품 파티, 옷통 벗고 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굉장히 그 탈선이 도를 넘어서는 하위문화의 섬 이런 걸로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팔마를 우리가 바빌론(Babylon)화라는 뭐 소돔(Sodom)과 고모라(Gomorra)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도 굉장히 퇴폐한 그런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중해의 바빌론이다’ 이런 별칭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독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독일 사람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은퇴자들이 여기 와서 살게 하니까, ‘마요르카 좀 독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독일어를 조금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건(soll) will이구요, deutsch는 독일로 알겠지요, werden은 become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요르카는 독일의 17번째 연방주, 독일이 통일 된 다음에 16개의

주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마요르카를 사겠다. 어느 독일 의원이 말을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마요르카가 되진 않았지만 마요르카화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저는 마요르카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하면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중국 관광객을 많이 받고 투자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뒤에 나오겠지만 마요르카에서 이제 환경세를 걷었거든요. 그런데 독일 정부나 그 다음에 독일 관광객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환경세를 걷었던 것을 1년 만에 다시 철회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어느 한 국가에 의존을 하게 되면 그게 관광이든 어느 쪽이든 결국 우리의 주권을, 주권까지도 간섭, 침해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료집 p14, chapter 6-1) 그래서 마요르카의 정책 턴(Turn)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권이 바뀔 때, 우리는 여야가 바뀌어도 그렇게 정책 방향 턴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유럽은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사회당이 차례대로 나누어가면서 하는데, 주로 사회당 정부에서 정책토론을 하면 보수당은 다시 얹어놓고, 뭐 이런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요르카도 팔마가 이제 'Palma, a business city', 슬로건이 이거였는데, 'I love NY'을 모방해 가지고 'I love palma' 이렇게 슬로건으로, 슬로건을 바꿨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문명 개발이 이루어졌었고, 여기 뭐 보시면 제주의 지금 현재 문제와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근데 특히 마요르카는 물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성주 교수도 제가 다른 논문, 마요르카의 문제하면 물을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유럽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돗물, 그 다음에 물값, 물 비용이 한 2배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자체가 굉장히 비가 좀 없는 지역이죠. 그리고 지중해 섬이라고 하면 서늘하고, 시원하며서도 비가 잘, 습도 높지 않은 지역인데, 사실은 이 지중해 지역도 옛날에는, '호메레스의 일리아스(Homeros Ilias)' 이런 것을 보면 원래 그러지 않았던 거 같아요. 굉장히, 그때 일리아스 보면 막 소를 잡아먹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때 그리스 아테네(Greece Athens) 이런 쪽들을 가보면 지금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옛날로부터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기

후마저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마요르카는 물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구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에 대해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 문제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근데 농업도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제주의 문제 비슷한 건데 에너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구요.

(자료집 p15, chapter 6-2) 그래서 정책방향 턴(Turn)을 한 것 중에서 90년대에 요한 파게다(Joan Fageda)라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가지고 사회당 시장입니다. 사회당 정부가 맡아가지고, 아무튼 마요르카의 주요 이슈는 도시 문제와 환경 보존이다. 그래서 '도시 성장 운동을 전개를 하겠다.' 해서 이런 도시 개발 정책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해안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조트(Resort) 그 토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건축물 정리 계획을 다 마련을 하구요. 그 다음에 계절별로 자연 관광 특화, 그 다음에 관광에 관한 교육 훈련, 고용 특화, 이런 시도를 90년대 초반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이 바뀌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아니었고, 단기적·부분별 목표나 행동으로 인해서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못해서. 사실은 마요르카는 지금 어느 정도의 정책 턴 정도는 됐지만 완전히 성공한 섬은 아니다, 섬 관광지는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독일 사람들이 와서 싸구려 이미지가 있고, 또 싸게 이용을 하고 있구요. 또 독일인들이 아무튼 독일보다는 땅 값이나 이런 것들이 싸기 때문에 주로 독일 노인들이 은퇴를 하고 와서 사는데, 또 여기에 논문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독일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는데 국적, 그러니까 주소를 거기로 옮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땅 그것만 사 놓고. 그런데 이게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 독일은 선진국이니까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독일 사람들이 옮겨 왔지만, 땅을 사 놓고 거기 살지만 3개월 정도면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95년도에 장기전략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광 및 지역개발 계획을 설립했구요. 그 다음에 환경용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건축, 그래서 이제 빌딩 퍼밋(Permit)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런 정책까지도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선언을 했죠. 그 빌딩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또 기존 유산 복원을 우선 하는 것, 마요르카는 제주, 우리 제주도 기존에 문화유산이 있습니다만, 지중해

섬들은 옛날에 뭐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 5세기 그럴 때부터, 그 다음에 또 로마(Rome)가 집권을 할 때부터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침공하고 할 때 거기 거쳐 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요새로 다 만들어서 역사·문화유산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 유산을 복원하는 걸로 그런 정책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1박당 이게(자료집 15p, chapter 6. 마요르카의 정책방향 전환 12번째 줄) 지금 1유로인데, 0.2에서 2유로까지를 환경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독일 정부와 독일 관광객들의 반대로 환경세 도입했다가 폐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주에 시사점을 제가 정리를 나뉠 해봤는데, 이거는(자료집 15p, chapter 7) 그냥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입지적으로는 제주와 유사하다. 그리고 유럽에서 거의 2시간, 런던에서 2시간 거리니깐요. 2시간이 안 걸리는, 아무튼 그 정도로 해서 우리도 제주도 잠재적인 관광 시장이 크죠. 중국, 상해 북경부터 일본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깐요. 동남아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적 입지는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외부 자본 투자 및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 위기를 겪었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버블(Bubble) 문제, 그 다음에 유럽 경제 위기로 관광 시장 침체를 겪었었다. 우리가 제주도 이제 무한정 성장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제주에서 적정 관광객 얘기를 합니다만, 적정 관광객을 논의할 때 가 있을 거고, 또 환경용량도 저희 비전에서 잠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Detail)하게, 깊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환경과피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반레알화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제주의 가진 장점을 절대 놓치면 안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양지 내지는 관광지로서 매력은, 그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걸 파괴하게 되면 결국은 반레알화가 일어나고, 제주도 어느 순간에는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벌써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고, 그렇지만 깊은 고민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자유로운 토론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 영역에 계신 제주대학교의 홍성화 교수님부터 한번, 관광 쪽에 상당히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성화 교수(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 예, 제주대학교 홍성화입니다. 처음 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사실 저는 마요르카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 했고, 세미나를 위해 진짜 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요르카 보니까 여건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주에 비해서. 아마 제주가 마요르카 같은 이런 기후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좋은 여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조판기 연구위원님께서 성공한 그렇게 썩 성공한 관광지는 아닌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는 게 일단 가장 부러운 게 쾌척일수가 1년에 300일 이상 된다고 그러고. 겨울 평균 온도가 10도, 여름에 25도, 1년 내내 사계절 정말 좋은 기후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고, 그리고 교통 상황도 보게 되면 북유럽에서 한 2~3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과거에 로마나 비잔틴(Byzantine), 그리고 이슬람(Islam), 지배를 받긴 했지만 거기에서 남아있는 문화자원, 유적들. 면적도 제주의 한 2배 되는데 인구는 한 78만이니까 우리 처럼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저런 여건을 보게 되면 정말 섬 관광지로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어떤 인프라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좀 자료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관광객 유치 현황 보려고 했더니 2013년 보니까 2000만 명 정도 관광객 유치를 했는데, 근데 내국인 관광과 인바운드(Inbound) 구분은 되어있지 않고, 이러한 여건으로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러운 여건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것은 여기에 관광 정책과 관련된 의사 결정 하는데 있어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이슈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섬 자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굉장히 막강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 프라이드(Pride)가 환경 보전, 생물보전권 지역 신청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보전,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자치위원회의 모델이나 역할, 기능이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면 제주자치도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느껴봤고. 특이한 것은 이 비치가 3가지 종류를 분류해서 좀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어반 비치(Urban beach)해서 도시 해변, 투어리스트 비치(Tourist beach)해서 관광 해변, 언노운 어반 비치(Unknown urban beach)해서 비도시 해변, 보통 접근성이라든가 주차 공간, 뭐 교통수

단, 이런 거에 해변의 성격에 따라서 컬러를 달리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좀 자료가 풍부했으면 제가 찾아서 저도 의견을 드리겠는데, 이슈(Issue)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계시지만은 사실 제주도가 최근에 이제 질적인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하와이 사례를 좀 많이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4가지 이슈가 관광산업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의 태도, 그리고 관광객 소비 지출, 아까 6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6조 넘게 발표하는 기관도 있고, 3조5천이라고 발표하는 기관도 있고, 아직 제주도에서 이제 똑같은 1년 동안의 관광객, 제주 관광 소비 지출이 2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굉장히 제주도 공격을 받을 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관광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세금의 투명성, 관광 사업체, 그리고 소비자 보호, 이게 이제 제주도의 질적 관광이 추구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마요르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까 발표자께서 마요르카에 약간 저가 관광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혹시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하이난(Hainan) 섬하고 홋카이도(Hokkaido) 섬을 최근에 다녀왔는데, 하이난 섬도 1년에 5천만 명 가까이 오지만 내국인이 98%이고, 인바운드는 2% 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마요르카도 국내 관광객하고 인바운드를 조금 구분해서 수치를 알 수 있으면, (조판기박사님 답변 있음-녹음 안 됨. 55:00분경) 이거 완전히 국제 관광지가 되는 거죠.

이중환 국장(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 여기 자료에 봤더니 2001년에 12% 자국민 비율이, 2006년에는 1.7%라고 논문에 되어있더라고요. 자국민으로부터는 이제 사랑을 안 받는 관광지 같습니다.

홍성화 교수(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 국제 관광지라면 체제 기간이 이제 하와이는 9박 10일 되잖아요. 여기는 누가 블로그(Blog)를 몇 개 봤는데, 내국인들이 다녀온 사람 표현이 제주도 같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주도 온 거 같은 느낌이다[고] 그랬는데, 3박4일 상품패키지가 대다수인 이런 것을 봤었습니다. 제 얘기를 정리하자면 굉장히 매력적인 관광지 섬인데,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내부적인 역량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고, 하지만 공항 여기도 1년에 한 2,500만 수용한다 그러고 장기적

으로는 4,000만 명까지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잠재성은 무궁무진한 것이 아닌가. 여기 마요르카의 섬 자치위원회나 전문가나 지자체가 잘 해서 정책, 제도 개선만 잘 하게 되면 정말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쪽 하고 좀 연계해서 서로 좋은 이슈는 논의해서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예, 고맙습니다.

발제자(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스페인 대사관을 한 번 갔었어요. 가서 좀 우리가 제주가 이러한 관심이 많으니까 뭐 하자 그랬는데, 마요르카에 대한 자료가 스페인 대사관에서는 구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그걸,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관심이 많으면 아예 발레아레스 제도와 연계를 시켜주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예, 상당히 뭔가 준 독립적인 느낌이 상당히 드네요. 예, 아까 전에 강시영 선임기자님께서 얼핏 얘기하던데, 여기 제도가 4개 섬인데, 그 가운데 이비자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중환 국장(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 우리 김현민 과장님이 아마 마요르카 본섬에 다녀오셨습니다.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우선 강시영 선임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강시영 선임기자(한라일보) :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비자 다녀오고, 마요르카는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정보는 없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미래비전 보고서, 그 내용을 보면 마요르카가 제주도의 하나의 성공사례가 될 거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오늘 내용을 좀 보완해서 발제를 하신 것을 들어보면 과연 저희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섬 관광지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 과거의

부정적인 사례만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교류의 근본적인 목적인지 하는 거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5월입니까, 5월에 아마 원희룡 지사와 스페인 대사가 서울에서 아마 만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류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게 발레아레스제도 와 격이 맞기 때문에, 마요르카는 하나의 작은 4개의 섬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와 격이 맞는 발레아레스 제도하고 교류를 이제 희망하는 서로의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후에 그 주한 스페인 상공회의소 하고도 좀 교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주도가 스페인 쪽에다가 이제 서안을 보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우리가 정보를 갖고 교류를 진행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충분한 정보를 좀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2013년에 이비자 섬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인데, 복합유산을 한 때 추진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유보된 아이디어이긴 한데, 비슷합니다. 들어보니까 마요르카나 이비자가 바로 연해에 있는 그러한 섬이기 때문에 거기도 제가 갔다 와서 대개는 출장 보고서에 어떤 영수처럼(?) 기사를 쓰긴 했는데 여기는 제가 가보지를 않았거든요, 부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제주도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이걸 제주도를 포기할까 그런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선적으로 좀 향락적인 그런 도시 이미지가 좀 강했고, 여기에 보면 나체촌,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제 개발과 보존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들었고, 그 세계유산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브랜드(Brand)로 활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과거 그 고대의 로마 유적이나 지중해 연해에 있는 여러 관광자원들을 테마(Theme)로 해서 상품화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유네스코 브랜드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사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합유산을 그네들도 복합유산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겠죠. 이제 관리들 정도가 복합유산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정도였는데, 결국에는 마요르카나 이비자가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생각을 해 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특히 저 아까 그 발제하신 것 중에 환경세, 환경세가, 아까 발제가 2007년도에 어떤 자료까지 이제 사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아마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최근 10년 동안, 2007년도 이후에 최근 한 10년간에 그런 변화를 어떻게 마요르카가 겪고 왔는지?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환경 정책들, 또 인근에 있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저항은 어떤 쪽에서 저항이 있었는지?

그런 과정에서 환경세가 폐지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작년 11월 몰디브(Maldives)가 환경세를, 작년 11월부터 몰디브가 환경세를 도입한다. 그러는데 아직 소식이 없거든요. 실제 도입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저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환경세가 여전히 도입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환경기여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퍼블리쉬(publish)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또 갖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논의가 개발 또 관광 이런 쪽에 되어 있지만, 우리 국제보호지역에 맞는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도정이 조직개편을,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리플크라운(Triple crown)과 람사르(Lamsar) 사르트 사르(람사르의 과거 명칭)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는 그런 통합적인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조직상으로는 있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데도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밝혀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 아시는 것처럼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후에 10년 전에 마데이라(Madeira) 사례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배웠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마데이라 사례가 저희들한테 이제 많이 익숙해져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의 싹 들어갔거든요. 마데이라가 우리가 뭘 벤치마킹 했는지, 그것도 이제 잊어버릴 정도로 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원[희룡]도정이 마요르카를 주목한다는 이런 얘기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지사 스스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탈리아] 사르데냐(Sardegna) 미국의 마이애미(Miami) 이런 마요르카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물론 지금 JDC에서, 원래 시작은 JDC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산 신양[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오션 마리나 시티(Ocean Marina City)인가요? 그거를 하면서 아마 마요르카를 주목한 게 아닌가 시작은.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명사들이 찾는 그런 마요르카, 이렇게 되면서 제주도가 많이 배워야 될 그런 섬 매력 관광지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최근에 관심도가. 근데 이제 그 이면에 지금 아까 발제해주신 내용들처럼 그런 부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정보가 없어서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예, 두 분 의견 들었구요. 이제 편하게 한 번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 마음대로 해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행정에서 혹시 국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 국장) : 일단 어느 한 지역이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데 동의를 하구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할 때는 싱가포르, 홍콩 많이 참고하려고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테이라, 이제 마요르카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각각이 다 의미는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제주가 특정한 곳만을 단일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일단 하는 거 자체가 이제는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마요르카에서도 저는 배울 점이 많이 있겠다. 가령 관광지이면서 또 여러 가지 자원이 고갈되면 이제 곤란한 섬이란 특성,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그게 잘 된 사례든, 잘못된 사례든 우리가 한 번 배워볼만 한 그런 곳이구나. 그래서 잘 된 거 같구요. 전 마요르카 사례, 아까 이성주 교수님 자료를 저도 읽고 왔는데, 봤더니 등락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관광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세계 경제위기가 거칠 때마다 이 섬도 덩달아서 이제 관광객이 급감하고, 즉 관광객 증가율 그래프(Graph)를 보면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항공기, 화산 폭발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는다 하면 또 이제 관광객이 급감을 하고, 인근에 테러(Terror)가 있으면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제주 관광이 이제 규모가 아주 커졌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적게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주 경제가 꾸준히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우선은 관광을 떠나서 제주의 산업 구조 관련해서 계속, 물론 관광이 잘 되고 있으니까 관광부터 잘 해야 되지만, 2차 산업까지 저는, 제주에 맞는 2차 산업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제자유도시 검토할 때 보면 한 20%정도가 2차 산업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국가 단위는 아니지만 지역 경제의 산업 간 다변화가 저는 마요르카 사례 보면서 역시 필요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관광객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제주는 그래도 약간 좀 마요르카보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나 지중해 여러 섬들은 경쟁 섬 관광지가 아주 많잖아요. 근데 이제 동북아 쪽만 본다면 우리도 아시아권에 엄청 많지만, 동북아권만 본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든든한 어쨌든 내국인 수요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마요르카 봤더니 스페인 관광객, 자국 관광객은 아주 적게 되고, 이제 독일, 스위스 이런 데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은데, 아까 환경세 얘기 나왔을 때도

독일에서 그걸 도입하니까 여행사나 독일의 언론들이 마요르카에 가지 말자 하는 보이콧 운동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관광객이 한 해 사이에 360만명 독일 관광객이 가다가 130만 명이 줄어서 230만, 근데 규모, 경제규모가 커져있는 상황에서 만약 130만 명이 뚝 떨어지면 저는 엄청난 경제에 타격이거든요. 작년에 우리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 호흡기증후군)할 때, 메르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관광객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죽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바로 다음 해에 환경세를 폐지했다. 논문에서 그렇게 읽었구요. 그래서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누구나 다 동감하겠지만, 어쨌든 제주의 매력을 지키는 거, 제주의 매력은 결국은 자연 환경에 있을 텐데, 마요르카도 전 가보진 않았지만 토론회 하면서 구글(Google)로 해안변, 특히 해안변의 모습을 이렇게, 거긴 거리 뷰(Street view) 같은 걸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안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가지(市街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간략히 보고, 거기 올라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봤는데, 사진을 봤더니 자연적 풍광은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보다 나으면 나왔지 해안변 풍경은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발한 양상을 봤더니, 해안변 바로 붙여가지고 별장들 많이 짓고, 특히 이제 수영장 있는 별장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전에, 그 전 단계 대량 관광의 문제되면서 고급, 질 높은 관광으로 가자하면서 골프(Golf), 요트(Yacht), 별장, 이런 것들, 그때 지은 거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물 수요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바닷물이 지하수를 잠식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근데 한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행인게 제주의 지질적 특성이 한라산이 가운데 딱 일단 있는 게, 마요르카는 봤더니, 제가 여기 논문은 다르게 나와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오른 쪽, 동쪽이 높고 서쪽은 뭐 중간에 봤더니 산도 또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낮은 지형 이렇게 되던데, 제주는 가운데 한라산이 있어서 천연적으로 보호되는 게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구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마요르카는 나중에 이제 환경규제 하는 법들을 관광지들이 많이 개발된 다음에 만들었는데 제주는 지금처럼 관광이 뜨기 전에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주 '절대상대보존지역' 그 다음 필지별로 지하에서 등급 다 하고, 그렇게 상당히 많은 노력을 이미 해 왔다는 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 다만 이제 그래도 최근 들어 와서 뜨는 곳은 어쨌든 경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만 놔두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여

기까지 하고...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예, 다음 분, 우리 연구원에서 김태운 박사님 하십니까?

김태운(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글썽요. 저는 관광 분야도 아니어서 굉장히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들으면서 관광지를 선택하는 것도 관광객이 하고, 또 관광객을 포기하거나 떠나버리는 것도 관광객이 한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 관광객들은 어떤 적정선을 선호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요르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스페인의 그랑카나리아(GranCanaria)라든지 마요르카라든지 몇 개 섬을 연동해서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똑같이 출발하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랑카나리아 하고 마요르카 하게 되면 여기 비교해서는 마요르카가 그랑카나리아보다 이제 낮은 상태에서 앞선 상태로 되어있는데, 아마 관광객들이 처음 찾을 때는 마요르카보다 그랑카나리아를 찾았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가 갖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과도한 인프라, 많은 관광객, 기대하는 적정선이 빗나가니까 대안으로 또한 마요르카를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제주에 관광객이 와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관광객이 많이 찾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치게 되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미래에도 가장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미래비전'에서 '청정'과 '공존'의 핵심 가치를 정한 것은 굉장히 크고, 또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투자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보존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마요르카나 그랑카나리아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체류형 관광지여서 관광객들이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일시 방문하는 관광지와는 다른 패턴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라든지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고유함, 높은 어떤 문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될지 모르지만, 제주는 안정된 상태라기보다는 과도기에 있는 게 아닌가. 단기 방문객들이 많은 현상에서 이들의 충족을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고 제주는 또한 장기 체류형 관광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체류형 관광지가 되었을 때,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그 면도 함께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

래서 그랑카나리아나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제주가 지향하는 장기 체류형 모델에서 굉장히 배울 바는 클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박3일, 3박4일형 체류형에서 그 상품만으로는 이제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하나의 문제는 독일인 관광객들이 은퇴 후에 주로 장기 체류하는 층과 젊은 층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쪽 사정하고, 중국 또한 최근에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변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전략 같은 것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지금 6.9%에서 더 떨어지더라도 해외관광객 수요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분간 제주에 영향을 덜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도 하고 그러는데, 더욱이 중국과 한국 간의 정치적인 쟁점이 또한 변수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주와 중국과의 어떤 외적인 변수에 대한 위기관리 역량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윤(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글썄요. 저는 관광 분야도 아니어서 얘기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조판기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관광지를 선택하는 것도 관광객이 하고, 또 관광객들이 관광을 포기하거나 떠나버리는 것도 관광객이 결정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관광객들은 그들이 방문하고 있는 관광지에서 어떤 적정선을 선호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마요르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스페인의 그랑카나리아(GranCanaria)라든지 마요르카라든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주요 관광지인 몇 개의 섬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광지가 함께 출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현재 그랑카나리아보다 마요르카가 많이 앞서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과거 어느 시점까지는 마요르카보다 그랑카나리아가 앞선 관광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마요르카가 그랑카나리아보다 낮은 상태에서 앞선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마요르카처럼 그랑카나리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았고, 대표적인 관광지로 명성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랑카나리아도 관광 인프라가 갖춰지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과도한 인프라, 많은 관광객, 특히 관광객들이 섬 관광지에서 기대하는 적정선을 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마요르카를 찾기 시작했고 마요르카고 그랑카나리아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제주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큼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적정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그 무엇을 상실하게 된다면 관광객들은 또 다른 관광지를 찾아 떠나겠죠? 명확하지 않은 적정선,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제주의 매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제주는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랑카나리아나 마요르카가 시사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청정환경이라고 생각하며 미래에도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자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미래비전’에서 ‘청정’과 ‘공존’의 핵심 가치를 정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며 도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점은 미래비전의 공유와 실천에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비전은 관광객만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미래비전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투자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보존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도민의 삶의 질도 관광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요르카나 그랑카나리아가 같은 경우 장기 체류형 관광지이며 일반적인 단기간 방문하는 관광지와는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정체성, 고유함, 높은 문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관광객들이 누군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일지도 모릅니다. 제주를 일시 방문하는 지역에서 장기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단기 관광객이나 장기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기 방문객들이 많은 현상에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장기 체류형 관광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체류형 관광지가 되었을 때 갖추어야 하는 환경요인, 문화요인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랑카나리아나 마요르카 같은 경우 제주가 지향하는 장기 체류형 모델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와 같은 2박3일, 3박 4일형 체류형 관광 상품만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독일인 관광객들이 은퇴 후에 주로 장기 체류하는 층과 젊은 층들이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각기 선호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지만 공통적인 문제점은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독일 관광객들이 경기침체 영향으로 마요르카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최근 제주를 가장 많이 찾는 중국의 경제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제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편, 중국의 경제상황이 두 자리 수에서 현재 6.9% 수준이고 앞으로 더 떨어지더라도 해외여행이 가능한 중국 관광객 수요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분간 제주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상황보다도 정치상황에 따른 영향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국과 한국 간의 정치적인 쟁점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들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역량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표 안은 토론자가 검수하여 내용을 보충한 것임.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예, 문화 쪽에서도 애기를, 김수열 위원장님 코멘트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수열 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예술위원회) : 제가 얘기하기 전에 다녀오신 소감을 먼저 얘기해 봐야지요.

김현민 과장(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 제

가 3월 달에 2박3일로 다녀오긴 했는데, 이게 가서 정보가, 정보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까 같이 뭐,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게 물어 보고 물어 보고 해서 파악은 했지만. 관광객 이런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저희 제주 같이 통계가 몇 명, 이런 게 파악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발레아레스 제도의 마요르카가 이제 스페인이 17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광역자치단체가 17개입니다. 거기도. 우리 제주, 우리나라도 17개지만 시도가, 거기도 17개인데. 여기에 마요르카가 물어보니까,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을 계셨지만 연 300일 이상 날씨가 온화한 날씨, 그런 유적 또 접근성 이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던데. 서두에도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관광객이 2천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4개 섬을 합쳐서. 주로 마요르카는 한 1100만 명 정도, 나머지 3개 섬에 해서 2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 틀려가지고, 어떤 분은 전부 합쳐서 천만 명, 어떤 분은 1500만 명, 이게 정확한 데이터(Data)가 없었습니다. 정말 책도 없었고. 그런 게 참 어려웠는데, 저희 데이터를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갔다온 사람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2천만 명으로 쓴 사람이 많더라고[요]. 현지에서는 한 천만에서 천오백만 명, 그 정도로 저희가 들었고, 주로 아까 이비자섬, 강시영 국장님이 이비자섬 갔다 왔다고 하지만, 이비자섬은 젊은 사람들이 24시간 노는 그런 클럽이 있고 그런 곳인데, 마요르카 섬은 인구가 한 1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발레아레스 제도가, 근데 마요르카가 100만 명 정도, 또 나머지 이비자 섬은 13만 명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120만 명 정도 되는데, 마요르카 가서 보니까 안익태 기념관도 있었고, 기념관이 아니라 기념비가 있었고, 애국가도 있었지만. 저희가 가서 2박3일로 가긴 갔는데 하루정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게 차도 못 타고 버스 타고 다니다보니까 몇 군데를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통역도 없이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물어보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아까 가서 보니까 제일 느낀 게, 나이 든 사람이 독일인이 참 많다는 거, 독일인이 나이든 사람이 퇴직해서 아까 40%라고 하셨는데, 이 세컨드 하우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독일인이 은퇴해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참 많았다. 그리고 또 나머지 그 주변에 영국이나 스페인 내부에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 은퇴해서 나이든 사람이 참 많이 봤다 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여기에 그 가장 문제가 되는, 제가 물어 봤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관광지다 보니까 지역 여건은 거의 제주도 하고 흡사했습니다. 돌담, 무슨 동굴, 비치, 예를 들어 비치 같은 거는 거기는 한 200개 이상이 넘어요. 비치가 200개 이상이 넘는데, 동굴이나 모든

향락에 빠져 사는 것도 있지만. 이비자 섬이 더 그렇고, 마요르카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못 느끼던데. 문제는 거기 가장 많이 찾는 이유가 접근성에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의 거리. 너무 멀지도 않고, 2시간이니까 이게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근데 그 쪽에서 우리 제주를 얘기하니까 제주를 알긴 아는 사람도 있고, 너무 멀어서. 자기네는 유럽 사람이 너무 먼 데는 잘 좋아하지를 않아서 제주에 오는 데는 자기네가 너무 멀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지만, 거기에 배울 거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쪽하고 너무 멀지만 그 쪽에 자치, 지방자치단체 설립이 1983년도가 그렇게 돼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있었고, 요즘은 거의 이제 휴양지로 했기 때문에 배울 건 배우고, 도입 안 할 건 안했으면 그런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예, 고맙습니다. 김수열 위원장님, 이제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수열 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예술위원회) : 예, 2박3일 갔다 오신 거구나예. 우리 흔한 얘기로 여담입니다만, 어떻게 어디 구경한 사람하고, 구경 안 한 사람하고 싸우면 구경 안 한 사람이 이깁니다. 한 사람보다. 저도 여기 처음에 여기 좀 참석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무심결에 대답했다가 자료를 받아보고 가서 할 자리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쪽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뭐 할 얘기는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온 김에 좀 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뭐 주로 문화 예술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렇듯이 관광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도 분명히 한번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쪽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할까를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천만 명이 왔다. 관광지로서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천만 명이 와서 그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환원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자료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500만 명이 왔을 때에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지는 어떤 수익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그거 하고 천만 명이 왔을 때 수익이 같다면 굳이 천만 명을 부를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환경과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500만 명이 왔을 때가 더 아름다운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시설이 들어갔는가? 얼마나 많은 관객을 유치할까? 이런 쪽의 고민보다는 문화 쪽에서도 어떤 기가 막힌 공연물을 가지고 올까? 뛰어난 예술을 만들어낼까도 중요한 고민이지만, 그러한 문화나 예술을 어떻게 제주도민들에게 많은 도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점의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죠. 이미 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좀 마요르카, 저는 뭐 전혀 모르는 도시입니다만, 이걸 보면서도 쪽 아까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차라리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말은 이 건만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을 것들은 꽤 있겠다는 생각은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는 중간에 그리고 저는 아주 그런 점은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2001년도인가요. 한 번 관광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제주에서의 관광 산업이 앞으로 가장 전도유망한 미래의 산업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에서 그럼 그렇게 관광객이 증대했을 때 지금까지 설문에 답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했을 때 전부 부정적입니다. 1/5이 부정 아니 80%가, 20% 범위 안에서만 이익을 봤다고 대답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렇다면 이런 것들에서부터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런 게 양적으로 확산이 더 이상 나는 아직도 중요한가? 필요한가? 라는 겁니다. 양보다는 질로, 도민도 살고, 지금 그렇게 요구되고 있는 관광객에 대해서도 양질의 제주가 무엇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무슨 청정과 공존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아주 괜찮게 봤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1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아까 우리 이재홍 본부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제자유도시 아닌 도시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미 10년 전의 개념이고. 그럼 앞으로 제주의 미래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청정이랑 공존이랑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제주의 가치라고 봐요, 특히 그 중에서 청정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앞으로의 관광 정책이나 문화예술 정책도 더불어 가지고 청정이랑 공존을 중심에 놓고 갔을 때, 그나마 비전이 있을 게 아닌가. 그런 발상이 정말 대단히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늘 보게 되면 발표되는 지수가 금년 관광객 천 몇 백만 돌파, 몇 년까지 얼마, 무슨 달까지 얼마 뭐 7월 달까지 얼마 왔다, 9월 달에 얼마 왔다, 전년도에 비해서 뭐 한 달 일찍 돌파했다.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제 와서는, 옆에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실에 가 가지고 옆에 보니까 도표가 있으니깐 떼라고 했어요. 월별로 이렇게 막대그래프 그려 놔가지고 이거 아직도 이런 거 하나고.

이중환 국장(문화관광스포츠국) : 땡습니다.

홍성화 교수(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중간에 말 잘라 죄송한데, 아까 제가 도에서 질적인 관광 패러다임 바꾼다 했는데, 그렇다고 양적인 팽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제주도에 관광 사업체가 아시다시피 다 중소 규모이고 엄청나게 공급 과잉입니다. 아시겠지만 숙박업체 호텔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이주민들 들어와 있는 펜션, 렌트카가 뭐 3만대, 전세버스, 여행사 다 엄청나게 공급과잉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D 마케팅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관광객을 통제시켜 버리게 되면 지금 제주도 관광 사업체가 현재를 보고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추세를 보고 다 지금 엄청나게 미리 댕겨서 다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관광객이 정체되어 이렇게 되면 다 이 사람들은 다 제주도에 있는 주민들 사업자인데, 한 과반이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한 고민도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열 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예술위원회) : 물론 저는 3자의 입장, 관광 쪽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 중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데에 있어서도 좀 더 진중하게 정책적으로 고민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규제·완화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제주도가 앞으로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제주의 미래를 가치를 가지고 나가려면 완화할 건 완화하되 완화하지 말아야 될 것,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은 지켜나가는 게 오히려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완화했다고 해결 됩니까? 렌트카 더 해야 돼요 그러면?

홍성화 교수(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 그래서 제가 저도 허가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관광산업체에. 지금 다 신고제여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수열 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 그리고 저는 차라리 이제는 우리 흔히 얘기해서 포스트모던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대량의 큰 규모 있

는 식의 어떤 관광이라든가 이런 시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중심의, 대규모 중심의 이게 아니라 이제는 좀 단체가 아닌 개별, 소규모, 다양화, 이런 식의, 이런 식에서 양보다는 몇 명이 왔다. 이런 거 보다는 질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제주도가 됐을 때 진정한 관광정책이 아닌가 그거 하나 하구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또 제가 쓴 용어 중에 대개 마음에 들었던 게 ‘근본적 자산’이라는 말씀을 발제하시는 분이 쓰셨는데, 저는 정말이지 제주의 관광이든, 이게 근본적 자산을 지켜나가는 관광 정책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 자산이라고 하는 게 달리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손실의 위기, 여기 글대로 한다면 손실하지 않는 관광 정책으로 가자는 얘기지요. 이게 왜냐하게 되면, 흔히 하는 얘기인데, 자연이나 문화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후손에게 줘야 될 거잖아요.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만 써야지.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제할 것들은 정확히 규제하면서 우리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완화하고 적정하게 규제하면서 가야지. 그러한 정말이지 근본적 자산마저도 천만, 천오백만, 이천 만이 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풀어헤쳤을 때, 과연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뉘 제 삼자로서 고민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환 국장(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 죄송한 게 아니라 맞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딱 이재홍 본부장님한테 얘기할 말의 진행상 보니까 딱 가게 됐네요.

이재홍 본부장(제주관광공사) : 예, 이재홍입니다. 세계 섬 문화 네트워크 했는데, 저 관광공사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관광공사가 이런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제주발전연구원이 먼저 하는구나. 역시 그래서 저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의 싱크탱크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관광공사에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조판기 연구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섬 관광 정책포럼을 하지 않습니까. 다 알다시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히스토리(history)도 알고 또 다시 얘기도 하다보면, 올해 20년입니다. 올해 20년,

20회 째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열리게 됐는데, 사실은 섬 관광에 대해서 이만큼 오랫동안, 질은 둘째 치고, 양으로도 한 지역에 섬 관광이라는 것을 20년 동안 해 본 데가 있겠는가. 물론 UN WTO에서도 섬 관광 컨퍼런스(Conference)도 하고 하지만 20년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로는, 이제 질은 빠구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제주도 관광이 통계가 61년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54년, 55년의 통계를 갖고 있는 데가 또 관광을 꼭 어디가 이렇게 긴 세월동안 통계를 할까? 생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이 섬이라는 게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다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섬이라는 게, 하나는 폐쇄이고, 바다에 둘러싸여서 폐쇄이고, 또 하나는 늘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수탈이 돼왔던 곳이다. 그래서 폐쇄와 수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섬이 살기 위해서는 외부와 소통, 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곳이 저는 이제 섬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지구촌이 어느 정도 살만하면서 폐쇄적이었고, 수탈이었던 그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새로운 자원으로 된 거죠. 지금 말하는 스페인이라든가 우리 예전에 했던 포르투갈 마데이(Portugal Madeira)라든가, 모든 사실은 섬 관광지의 자원이 유럽 중심, 미주 중심의 수탈의 역사가 지금에 보면 사실은 어떤 관광자원이었다. 이렇게 하나 있구요. 또 하나는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덜 도시화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가 관광자원으로서 이렇게 보고 있다. 우리가 섬이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양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섬에서 도시 관광을 찾진 않지 않습니까. 극히 몇 명을 빼놓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전제로 놓고 보면 우리가 섬 관광이 대량화되면 대량화 될수록 개방화되면 개방화 될수록 사실은 섬 관광이 갖고 있는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봤던 마요르카나 모든 섬의 공통적인 추세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제주도에서 열렸던 19회 섬 관광 정책포럼을 우리 이중환 국장님께서 섬 관광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어떻게 소득과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른 바 문제를 던져가지고, 아, 이거 다른 섬도 이렇게 고민할까? 이거 우리만 고민할 건데, 해서 사전 준비하면서 다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섬들이 얘기하는 게 이 주제 야 참 잘 정했다, 이게 지금 우리 섬의 얘기다. 모든 게 10개국 섬이 다 그래요. 파타(?)조차도. 이 문제를 어떻게 잡았느냐, 즉 전 세계 섬 관광이 이 문제를 갖고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섬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폐쇄적인 거기 때문에, 섬이 자원도 없지 않습니까.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른 바 내재적 개발이 섬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자원, 외부의 인력, 외부의 자원을 갖고 오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도 엄

격하게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오늘도 섬 관광은 50년 전, 100년 전 수탈 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주도가 어떤 질의 관광을 얘기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대단히 뛰어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주가 그나마 지금 정도의 경제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마테이나 이런 곳과 달리 지금 우리 관광이, 3차 산업이 GDP정도의 점유율은 높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근본의 삶은 1차 산업이다. 이렇게 섬의 섬 관광을 하면서 농수축산과 1차 산업이 같이 많이 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다 다른 데, 뭐 발리를 그런 데를 가보면 기념품 쪽 2차 산업 조금 조금 조금, 농·수·축 1차 산업 조금 조금 조금 하지 기본적으로 생명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농수가 막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그 수준도 아주 낮고. 저희들은 농수축산업의 수준도 상당히 국제적 수준이구요. 품질도, 관광도 마찬가지로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의 오늘날 제주 관광을 버티는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요르카를 딱 우리 박찬식 센터장님께서 맨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저도 마요르카 마요르카하니까 남들 듣기에 그래 여기에 우리가 열쇠가 있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저도 이성주 그 분 논문 봤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그 제가 논문을 받을 때가 어디 갔었냐 하면 ITOP포럼 때문에 스리랑카를 갔었습니다. 사실 스리랑카도 바로 인도 밑에 있어가지고 세계적 관광지인데, 마요르카와 똑같은 고민이에요. 거기는 호텔 아니면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없다는 것은 전기가 없다는 거죠. 선풍기가 있거나 말거나. 저희들이 갔는데 국립박물관도 낮에 전기가 정전되어 가지고 국립박물관 그 옆에 있는 국립우체국이 다 불 꺼져 가지고 관람이 안 됩니다. 에너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투숙해있는 호텔도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인데, 샤워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물이 그대로 졸졸졸. 그러니까 표현이 딱 진짜입니다. 졸졸졸. 세수를 하려고 그러면 짜증나고, 머리를 감는 거는 상당히 인내가 있어야 머리를 감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사실 마요르카도 마찬가지로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발리도 모든 게 자원, 에너지에 관한 것, 전기나 물이나 관한 것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섬 관광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그 김수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섬 관광이 무엇을 갖고 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 관광을 얘기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보여주는 섬 관광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하는, 사실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섬 관광, 섬 문화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지? 자연은 보여주는 데, 결국은 섬 관광이라는 게, 가서 자연

하나 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을 찾아내고, 그거에 체험하고, 그거에 감동을 느끼고 하는 게 관광인데, 제주도가 보여주는 섬 문화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저희들이 지나기도 했지만, 발리나 오키나와(Okinawa)나 하이난 그런 데에서 많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발리(Bali Island) 같은 경우가 대단히 그런데, 발리 같은 경우는 자기네 관광의 기초를 섬 문화와 문화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발리화 되지 않은 것은 상품화가 안 된다. 발리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없는 것은 상품화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 발리를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리의 관광의 중심은 발리 주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발리에서는 호텔을 지을 때, 모든 호텔과 관광지는 그 지역 주민들에 오픈해야 됩니다. 호텔을 지으면 호텔 로비는 현지 지역주민들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호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그렇게 합의해서 하는 데도 있구요. 법적으로 묶어버리는 데도 있습니다. 발리 같은 경우는 발리 주정부령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우리가 말하는 공공 관광지, 공공 관광지는 전부 다 그 주체 운영권을 그 마을 주민에게 줍니다. 예를 들자면, 거문오름 하면 그 지역에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 공동체가 실제 관광의 중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니까 모든 섬들의 주체가 그런 거예요. 목표가 뭐냐면, 지역 주민의 풍요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난은 뭐라 그러냐면 현지 주민의 이익 창출은 정부가 관광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목적이자 원동력이다, 이게 뭐 거의 표현 자체가 역시 사회주의 공화국 표현답게 이렇게 됩니다. 오키나와도 오키나와 주정부의 관광 목적이 주민이 풍요롭고 문화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누리도록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아까 김수열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국인이 만족을 느끼지 않은 관광지에 어느 외국인이 오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이 만족해하지 않는 제주 삶에 내국인이 올 리 없고, 외국인이 올 리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몇 가지의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강시영 선임기자께서 얘기하셨던 특별자치도에서 이제 포르투갈(Portugal)의 마테이라를 했었구요.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문화예술 해 가지고 일본의 나오시마 섬, 또 아이시티 해 가지고 발리의 우붓(Ubud) 지역들에 대해서 많은 사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사실 어느 하나를 이렇게 벤치마킹할 것은 없다. 제주도의 지형자원을 갖고 어떤 제도를 또는 어떤 아이템(Item)을 얻을 것인가, 또 거기에서 여기 마요르카처

럼 반면교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진짜 저는 미래비전이 청정과 공존은, 여기서 미래비전을 작성한 사람들이 안 계셔서 하는 말입니다만 청정과 공존은 아무리 진짜 해도 상당히 좀 오늘의 우리 제주 관광의, 진짜 제주의 미래를 보여주는 탁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공존, 청정과 공존의 그 두 가치를 우리의 모든 산업 속에 녹여 넣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 되면 진짜 제주도는 진짜 지속가능한 섬, 문화의 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 맞추어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국장님, 과장님 다 바쁘고 할 텐데. 마침 그래도 우리 연구원에 소속된 두 분이 마지막에 속해 있어서 좀 짧게 해도 좀 결례가 더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해주십시오.

정승훈 연구실장(제주발전연구원) : 예,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성균관대 이교수님 자료를 어떻게 우연히 보고 오게 됐는데요. 뭐냐면 그냥 느꼈던 게 자료 보고 어떤 섬 지역의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수용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더라. 그거구요.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모토(Motto)였다. 어쨌든 처음에는 환경훼손이라든가 난개발 막 했었는데 결국은 지속가능한 관광이 모토였다. 세 번째가 질적 관광을 추구하고 있더라. 근데 처음에는 근데 우리 제주도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막 대량 관광객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만 치중하다가 그거가 이제 어느 순간엔가 그거를 늦춰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요트 관광이라든가 골프 관광, 또 이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별장도 많이 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난개발이 되고, 그에 따라서 물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더라 이거구요. 네 번째는 아까 우리 이중환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업 구조상 관광 산업 의존도가 상당히 심한데, 그걸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광 위기관리 문제, 여기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 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훼손, 이거 관련되어가지고 위기 관리를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나왔던 것 같구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마요르카나 제주도가 배후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지중해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유럽 사람들이 관광을 많

이 하기 때문에 많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
구요.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요르카는 정말 그 장기체류할 수
있는 휴양지 여건이 일단 갖추어져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제가
보기에는 기후적인 요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렇게 일단 생각
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2003년도에 가 봤는데,
아까 우리 김현민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크루즈 관광이 엄청나게 활성화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요르카 자료 보다가 크루즈 얘기는 나오지 않
아 가지고 여긴 어떤 곳인가 했는데,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10만 톤급 크루
즈가 3척이나 저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구나. 그 다음
에 요트, 다른 나라에 가면 요트가 엄청나게 활성화 돼 있는데, 여기도 똑같
은 그런 조건이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예, 고맙습니다.
문순덕 박사님.

문순덕 책임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하고 자료 검색을 하는데 자료가 진짜 없었습니다. 많은 줄 알았는데... 그라
서 조판기 박사님 글 읽고 그냥 생각은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벤치
마킹을 하는, 그러니까 사례조사를 많이 해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장점도
가져오고 단점도 가져오는데. 저는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주도를 섬 관광지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든다
고 할 때에 전 세계인이 다 오는 이렇게 목표를 두면 참 어렵겠다. 왜냐하면
1차가 여기 마요르카 하고 제주도의 상황을 좀 더 비교해본다면 가장 중요
한 건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 그래서 아까 지도를 딱
보니까, 지도 보면서 저는 그 위어를 한국 서울하고 마요르카를 제주로 하면
왼 쪽에 찍힌 섬, 그 스페인 섬을 중국으로 놔볼까, 일본으로 놔볼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짧은 거리에 올 수 있는 지역만을 1차 대상으로 한다면 그
럼 제주도의 위치는 동북아를 역점으로 둘 건지, 그래서 어쨌든 주 타겟
(Target)은 아시아 대상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저는, 늘 고민은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단기 관광지가 아니고 장기 체류형 휴양지의
목적들을 두고 가는 것이 제주도가 어쨌든 오래 살 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
각이 들고. 우리가 흔히 비교 대상으로 삼는 섬들은 휴양지로서 많이 알려진
곳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의 다른 지역들이 발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유럽인들의 인식이 어쨌든 추운 거

올에는 따뜻한 지역으로 내려가서 오래 동안 머물다가 온다. 그러니까 북유럽부터 전부 밑의 지중해까지 어느 지역이든지 다 가서 사니까. 일단 그런 의식이 되어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짧고. 저는 궁금한 게 왜 독일인들이 거기 인접 국가들이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는데 왜 유독 독일인들이 40%이상이 그것도 은퇴자로 많이 갈까. 그리고 여기 3단계 발전계획에서 이민자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그 이민자들이, 은퇴자들이 거기 가서 등록을 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향후 제주도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은퇴자를 많이 받을 것인지 아닌지, 그 이민자에 대한 문제도 또 생기겠고. 또 하나는 마요르카 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마요르카는 30~40대, 소위 말하는 노동 생산 연령층이 높은데, 제주도는 그 연령층을 높게 하려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또 해야 되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그게 고민거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도 여기도 보니까 2차 산업도 일단 발전하고 수출할 수 있는 수출 품목들이 제주도의 상황하고는 달라서 그러한 품목, 산업하고 그 일자리하고 연계되면 그러면 제주도가 좀 더 활력 있는 지역이 되면서 그것이 관광객하고 관광지 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교통은 제2공항, 여기는 공항이 3개여서 저도 아 공항이 많으면 어쨌든 이동 수단이 배든 비행기든 이동 수단을 활발하게 해 주는 것이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길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메모는 많이 했는데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예 고맙습니다, 조 박사님 마무리 간단히 해 주시고 원장님도 총평하고 해서 끝내겠습니다.

발제자(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감사합니다. 발제자가 굉장히 자료를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뭐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구요. 근데 제가 이제 ‘제주미래비전’을 했었기 때문에 좀 부탁 겸, 제가 고민해서 해결 못한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질적 관광이 뭐냐. 사실은 ‘청정’과 ‘공존’ 정하고서 거기에 맞는 관광하니까 굉장히 작은 것들, 우리 미래비전은 굉장히 작은 정책들만 내놨어요. 근데 저는 도에서 대규모 관광도 해야죠. 많이 받아야 될 거고. 그래서 어떤 정책 턴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들 이런 것을 지원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해가지고 그 쪽을 좀 육성을 해 나가게 되면 도민의 삶과 연계된 삶, 또 질적 관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화두 던지듯이 던져놨는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고민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화 교수(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이어서 말이 많습니다. 아까 섬 관광 포럼이 2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그랬는데, 솔루션이(Solution) 뭐냐, 아직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맨날 똑같은, 거의 비슷합니다, 상황이. 우리끼리 매년 모여가지고 그래서 솔루션을 찾으려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질적인 성장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게 이제 관광 산업, 생태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발전되고, 선진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기 관광사업체 오너가 존중·존경받고, 제 값 주고 관광 상품 구입하고, 관광객 만족하고,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섬 관광 포럼을 섬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런 잘 되어 있는 도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섬 관광 여기에 적용시킬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질적인 관광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예, 마무리,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강기춘 원장(제주발전연구원) : 예, 오늘 저희들이 아마 제1회 제주학정책 포럼, 새로운 포맷과 새로운 주제로 제가 쪽 토론하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 주제 선정은 잘 된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동으로 느끼는 게 자료가 너무 부족했다. 기본적으로 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또 반면교사 나왔는데, 마요르카를 통해서 저는 두 개다 동시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면서, 우리 제주 발전연구원이 지금 최근에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제주도의 캐링 커패시티(Carrying capacity), 수용한계,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마요르카도 보니까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런 환경 용량들을 고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들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부동산 문제, 정주민 문제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고, 전선지중화 문제도 사실 우리 제주도 고민했었는데 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네요. 뭐 환경세 문제, 크루즈, 요트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한 번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조판기박사님 계시지만은 저는 우리 제주미래비전, 작년에 좀 하면서 느낀 게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지혜롭다. 청정만 이야기 했으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런 토론이 할 필요가 없어요, 청정은 너무나 클리어(Clear)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청정만 딱 떼어냈으면 사실은 우리가 청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을 것 일 텐데, 도민들이 너무나 지혜롭게 공존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아까 이 질적 성장, 그 다음에 양적 성장, 이것도 저는 공존이라고 봅니다. 오늘 나왔던 이 많은 이야기들도 저는 공존이라고 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공존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하라고 도민들이 우리에게 던져준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책포럼들이 앞으로 계속되면서 아마 좋은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토론 발제와 토론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반기에도 또 좋은 주제를 발굴해주시고 또 좋은 토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예, 원장님 말씀으로 오늘 제1회 제주학정책포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취 시 반영사항>

-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를 사용하여 글자를 보완함.
- 외국어는 녹취 과정에서 처음 한 번만 ()안에 외국어 표기를 함. 이후 반복된 외국어에서는 재표기를 하지 않음.
- 녹취과정에서 확인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은 (?)로 표시함.